

“精油産業도 石油代替에너지 開發投資를 서두를 때다”

對談 / 金 乾 洽 <大韓石油協會·弘報室長>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 높은 봉우리가 3개 있습니다. 첫째 봉우리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適期에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격상승요인을 어떻게 최소화하여 適正價格으로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며, 셋째는 어떻게 국민생활에 편리한 연료를 공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차관재임 3년3개월만에 에너지정책의 총수에 취임한 崔東奎 동력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정책의 3봉우리論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설명한다.

새해 벽두에 崔장관을 만나 石油정책에 관한 구상과 계획을 알아본다.



같은 여러가지 특질에서 어려운 과제를 相衡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石油가 總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유공장이 최초로 가동되었던 1964년의 9.6%에서 현재는 58%에 달하여 국민경제의 성장, 물가와 문화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自意든 他意든 정유산업의 公共性은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둘째로, 거대한 資

本集約的인 산업인 데 반하여 原料인 原油費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에 이르고 있어 原油의 안정적 低價확보가 기업경쟁의 死活을 좌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동되는 原油費를 가격에 그때 그때 轉稼하지 않는 한, 다른 방법으로 損益上의 돌파구를 찾을 수 없고, 셋째로 精油産業은 현재 5

축하드립니다. 저희 精油業界로서는 업계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깊이 이해하시는 장관님이시라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평소애 精油産業에 대해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問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우선 장관님의 취임을

答 우리나라의 精油産業은 국내적으로 다음과

개의 기업으로 併存하여 제한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바, 각기 생산, 경영, 재정조건이 다른데 대하여 자유주의경제질서하에서 필수적인 시장경쟁이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公共性的 제약내에서 企業性이 추구되어야 하는데 기업성의 추구가 精油産業의 自決原則에 따라 결정되지 못하고, 정부의 가격 및 인허가제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그 위에 정유산업간의 횡적인 경쟁을 숙명적으로 감내해야만 하는 실정 입

도를 감축시켜 공공성이 완화되도록 石油代替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원유의 導入先을 다원화해야 하며 原油費의 변동이 가격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결정에 자율성을 확보하여 企業性의 추구가 가능토록 해야 하며,

셋째로 국민경제의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민간주도의 경제가 절실히 요청되고 국제경쟁력의 제고 취지에서 개방경제가 요청됨에 따라 精油5社は各社의 체질에 맞는 시장경쟁

油도입유전스등 외채가 늘어나고, 또 換率상승등에 따른 환차손으로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精油産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 精油産業의 가동률저하와 수익성악화는 대체로 원유공급의 차질, 수요의 급격한 감퇴, 과잉공급시설, 비용을 補填받지 못하는 가격제도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정책방향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유공급의 차질을 해소시키는 데 있어서는 원유공급을 多辺化해야 하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하여 原油비축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급격한 수요의 감퇴는 과거의 실적으로 보아 石油가격이 일시 대폭 인상됨에 따라 발생하였는데 代替需要가 있는 한 비용전부를 높은 가격에 轉稼하는 것은 수요시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과거 제2차 석유파동시 日本의 민간 전력회사들은 3년간에 나누어 전력요금을 조정하였는 바, 이는 가동률과 수요시장을 감안한 처사였다고 봅니다. 원유가의 상승에 따라 가동률의 저하와 수익성의 악화를 相計한 精油会社는 원유에 투자한 실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精油産業은 부여된 公共性を 최대한으로 수용하되 장기적으로 國民經濟에서 石油의존도를 감축시켜 公共性이 완화되도록 石油代替에너지 개발투자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니다.

이와 같은 국내적인 요인 이외에도 국제적으로는 産油國의 공업화정책에 따라 석유화학공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오는 1986년 이후에는 석유제품의 강매압력이 제기되고, 선후진국간의 석유제품 수요모형이 다름에 따라 일부 석유제품이 국제시장에서 덤핑價格으로 거래됨으로써 국내수요자 입장에서 消費地 精製主義는 강렬하게 비판될 것이 쉽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精油産業이 대처해 갈 길은 무엇인가.

첫째로 부여된 公共性を 최대한으로 受容하되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서 석유에너지의존

의 노력과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네째로 국내석유제품의 수요패턴추세, 국제원유 및 제품시장의 추세, 정부의 산업지원정책의 간접화경향, 국민의 精油産業에 대한 알레르기적인 반응 등을 고려하여 장단기 신축성있는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問 현재 精油産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는 가동률의 저하와 수익성의 악화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79년 이래 原油가격상승 등 原価 상승시 適期에 적정률의 油価조정이 지연됨으로써 결손이 누증되고 있으며, 적자누적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原

과잉공급시설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허가 과정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용을 補填받지 못하는 가격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결정에 관여할 때 정치성과 경직성으로 인하여 민간경제가 경쟁의 틀 속에서 결정할 때보다 더욱 심각하게 그 단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성보장은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1차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및 경영정책에 따라自救의인 노력으로 결정되며, 정부의 정책과 방향은 이와 같은 기업의 수익성보장을 위한 투자 및 경영개선정책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거나 장애가 되는 방벽을 허물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된 자유주의경제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이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민간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정부는 그 정책과 제도로써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問 国内油價에 반영된 이윤이 적정수준인지?

만약 아니라면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答 국내물가 관리방식이 公正去來法 발효 이후 사전 직접규제에서 사후 간접규제로 전환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国内油價에 반영하고 있는 이윤은 精油部門 자기자본의 稅後 10% 수준으로 사후 간접규제방식의 물가관리체제와 基調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윤은 원론적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의 측면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현재 国内金利가 8% 수준임을 감안할 때 현 이윤수준은 경영의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나, 다만 불규칙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換率상승에 따른 추가비용의 규모가 變數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問 급격한 脱石油政策에 따라 정제시설의 유향화, 油種間 수급불균형의 발생 등이 우려되는데 급격한 脱石

나다. 문제는 석유제품의 수요 형태가 변화되는 데 따라서 일부 유향화되고 있는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改替하려는 것입니다.

問 油種間 가격을 국제가격구조에 접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答 복합적인 정책요인을 반영함에 따라 国内油種間 가격구조는 국제가격체제와 상당부분 乖離되어 있는 것

◎国内 油種間 가격구조를 국제가격구조로 접근시켜 갈 것이나, 우리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단기간내에 조정될 수 없으므로 政策環境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단계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油政策을 지양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答 石油代替電源개발, 유연탄사용 확대 및 代替 에너지개발 등의 脱石油政策추진은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源의 다변화와 에너지도입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불가피한 정책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같은 정책은 70년대말 제2차 석유파동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脱石油政策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産業用, 文化生活用 석유는 오는 2000년까지도 절대적인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입

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 및 脱石油 電源개발 등에 따른 輕質油 부족, 重質油과잉을 해소키 위한 시설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가공도가 높은 톨루엔 등이 가공도가 낮은 휘발유로 역진되는 현상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油價관리에 대한 정부의 직접규제범위를 축소하여 자율경영여건을 조성키 위한 油價制度 개선의 추진에도 장애요인의 하나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油種間 가격구조의 국제구조로의 접근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이는 油種間 가격구조가 현재처럼 형성되게 된 우리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단기간

내에 조정될 수 없으므로 정책 환경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단계적으로 추구하고 나갈 것입니다.

問

油価自律化는 政府部門費用의 축소, 油種間 가격체계의 개편, 유통구조의 전환 등 선결요건이 충족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答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油価결정방식을 피하기 위하여는 먼저 해결해야 할

루어질 때만이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율적인 결정이 기업 상호간의 경쟁이 무섭다고 타율적으로 정부에 의존할 때 비능률적이고 비용부담도 큰 기업까지도 수요시장을 割拠하고 정부의 經濟外的인 요인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성장을 제약하므로 油価制度의 개선은 오히려 민간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問

政策原油도입을 억제하고 精油社에 경제적으로 도입을 위한 자율성을 부여해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확일적이고 타율적인 政策原油도입은 가급적 지양하는 한편, 精油業界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政策原油를 도입하더라도 이익이 평형이 되게끔 최선의 방법을 선택, 국가와 精油業界에 모두 이로운 방향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問

장기 안정수급의 기본이 되는 消費地精製主義는 최근 국내외 석유정세의 변화와 함께 점차 퇴색해 가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精油業界에서는 消費地精製主義가 약화될 경우, 국내 장기석유류 안정수급이 저해되고, 또 精油社의 가동을 저하로 유류시설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정유업체로서는 2중3중의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答

우리 나라는 지난 64년 精油産業의 최초 가동 이래 가격의 직접통제 및 消費地精製主義의 기초하에 석유류 수급안정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消費地精製主義는 원유를 도입, 필요한 석유제품 全量을 생산·공급하여 형성되는 부가가치를 국내에 잔류시키고, 수급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메이저가 석유의 개발, 생산 등 上流部門을 장악했던 지난 50~70년대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외 석유정세의 변화는 消費地精製主義

●앞으로 확일적이고 타율적인 政策原油도입은 가급적 지양하는 한편, 精油業界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국가와 정유업체에 모두 이로운 方向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약요인이 있으며, 정부가 油価制度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것도 이러한 현실적 제약요인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油価制度개선은 전반적인 국내경제의 흐름과 그 기초를 같이해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경제운용이 민간주도형으로 정착되는 정도에 맞추어 제도개선에 이루어져야 그 효율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선결과제가 충족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선결과제의 충족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油価制度의 개선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유주의 경제의 장점은 공급, 수요, 그리고 가격의 결정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答

정부가 중장기 정책과제로 검토, 보완코자 하는 油価制度 개선 및 精油産業구조개편방안 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주도의 경제운용기조의 정착, 精油産業의 효율성 제고, 국제석유정세에의 효율적 대처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흐름과 政策原油 도입은 어느 정도 상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원유시장의 공급과잉에 따른 産油國의 재정핍박과 또한 외교·경제협력부문에까지 포괄하는 國益의 극대화라는 점도 쉽게 간과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에 의한 유류수급운용으로 국민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구현한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국제석유시장은 공급부족에서 공급과잉상태로 전환되어 장기공급계약에 의한 原油도입 못지 않게 現物市場기능이 중시되고 있으며, 선진소비국의 비축재고 보유 및 産油國의 제품생산 등 下流部門 진출은 油類供給源의 상당부분을 現物市場에 의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개방경제체제의 확대에 수출입자유화가 확대되고 石炭, LNG 등 石油代替에너지 도입이 증대되는 추세에 있어 消費地精製主義에 의한 석유류 수급운용은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입과 생산을 통한 공급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것이 자연적인 추세로 판단되며, 이 부분에 대한 精油業界의 능동적인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問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低硫黃油 공급확대는 이해가 되지만, 低硫黃油 공급확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脫黃시설과 重質油 분해시설의 설치등이 완비된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答 低硫黃油 공급의 확대가 점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異見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심각한 대기오염을 방

지하기 위하여 低硫黃油를 확대 공급해야 하는 수요측면과 급격한 사용확대에 따른 공급의 제약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環境序과 긴밀히 협조하여 低硫黃油 확대공급에 따른 공급측면을 중시하고, 低硫黃油 확대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問 국내 精油産業은 신규 및 노후시설의 代替, 重質油 분해시설의 건설, 低硫黃油 공급의 확대, 민간비축의 확대

문제를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구조개편방안 마련에 많은 협조와 조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問 끝으로 국내 精油産業은 앞으로도 계속 석유류의 안정수급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업계 나름대로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精油産業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의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업계의 자율적 책임경영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각

● 精油産業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유희시설과 신규투자소요의 문제를 균형있게 해결해야 하며, 또 이를 위한 적절한 対策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

등 신규투자소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精油産業이 재투자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答 精油産業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유희시설과 신규투자소요의 문제를 균형있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적절한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현재 當部가 검토중인 精油産業구조개편방안의 중핵을 이루는 것이므로 앞으로 그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 검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精油産業 스스로 이

종 법규나 제도 등에 의한 규제를 축소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答 경제운용의 기본골격이 開發年代의 정부기능의 축소와 민간주도형 경제운용기조로 전환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흐름 위에서 정부는 각종 법규나 제도를 보완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려고 노력하여 왔으나, 앞으로도 가능한 한 규제를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3월말까지 정유업계에서 보는 개선해 주어야 할 사항을 건의하여 주신다면 공동으로 검토하여 최대한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